

# “성묘·야외 활동 땀 진드기 조심하세요”

광주 감염병 지난해보다 1.2배↑

고열·구토 등 증상 진료 받아야

가을임에도 발열성질환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야외 활동이 많은 추석을 맞아 성묘객이나 나들이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은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은 소피침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SFTS는 주로 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8월말까지 광주지역에서 의심환자로 분류돼 연구원에 검사 의뢰된 건수는 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질병관리본부에 집계된 확진환자 수는 54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46명에 비해 1.2배 증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은 발열성질환의 발생 예측과 예방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광주 지역 야산과 등산로 등 자연환경계에서 정기적으로 진드기를 채집해 종별 분포상황과 병원체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결과를 보면 침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SFTS의 경우 작은소피침진드기 등 3개종 2308마리를 채집·검사했는데, 그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는

한 마리도 없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털진드기는 하절기 들어 8월 현재까지 한 마리도 채집되지 않고 있지만, 그 동안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 9월께부터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실제 쯔쯔가무시증 환자도 10월께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야외활동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증상은 물린 후 6~14일의 잠복기 이후에 38~40도에 이르는 고열,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증상이 동반되며,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하고 중증의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이 같이 발열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야외활동 시 반드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소매, 긴바지, 양말을 착용해 진드기 등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풀밭에서는 돛자리나 신문 등을 이용해 풀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활동 이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옷은 세탁을 해야 한다.

정재근 질병조사과장은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진드기 검사를 의뢰하면, 연구원에서 진드기 중 분류와 함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즉시 검사하고 있다”며 “만약 진드기에 물렸는데 고열, 두통,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병원, 몽골·러시아 의료 협력 앞장

보건부 교류사업 선정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이 최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16년 ‘한·몽 서울프로젝트’와 ‘한·러 연수프로젝트’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수프로젝트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 전수 및 한국과 몽골, 러시아 국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의료 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한·몽 서울프로젝트와 올해 한·러 연수프로젝트 사업의 수행성과와 다양한 대외적 활동을 인정받아 이번에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한·몽 서울프로젝트 선정 운영기관은 조선대병원·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원광대병원이며, 한·러 연수프로젝트 선정 운영기관은 조선대병원·서울대병원·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효산의료재단 샘병원 등이다.

조선대병원에 선정된 몽골 연수생은 총 5명(정형외과 2명, 이비인후과 1명, 감염내과 1명, 흉부외과 1명)이며, 러시아 연수생은 총 2명(이비인후과 1명, 감염내과 1명)으로 연수기간(8주) 동안 최신 의료기술 교육과 첨단 의료장비 실습은 물론 한국어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한·몽 서울프로젝트와 올해 한·러 연수프로젝트 사업에서 연수생들에게 연구소 방문 및 각종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국내 연구개발 사항과 의료 트렌드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다. 또 각 담당 교수와 국내 의료진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멘토링을 실시해 참여한 연수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조선대병원은 연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몽골, 캄보디아 등 해외의료봉사 및 의료산업 박람회, 선진 의료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의료력을 알리고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중장년 인생 이모작 어렵지 않아요”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교육과정 개설 20일까지 모집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봉채)은 오는 20일까지 하반기 중장년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과정은 ‘남은 50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년을 위한 ‘제2인생설계 아카데미’와 퇴직 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주는 ‘5060 퇴직자 중심 사회공헌 아카데미’다.

직무능력향상과 새로운 직업을 모색해보는 ‘제2커리어개발 교육과정’도 진행된다. ‘이모작 카운슬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비전’, ‘IT업무스킬 향상

(기초·심화)’, ‘커리어전환을 위한 경력 창출’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진흥원은 생계 등을 문제로 인생이모작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제2인생설계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20명 이상 참가자가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신청서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ie.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00-5241~2.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 이달까지 공모

광주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인의 자기전진을 위해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2016년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우수중소기업인 상은 최근 3년간 광주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로, 기업체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추천 방식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5명 내외로 선

정한다.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면 대표로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및 한도 증액,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기업육성과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gwang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 광주시, 추석맞이 나눔

광주시 공직자들이 올해도 추석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섰다.

광주시 공직자들은 더불어 사는 광주의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각 부서별로 자매결연을 한 사회복지시설 등 62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등 공직자 자율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설관리소와 5개 지역사업소 총 6개반을 구성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취약계층 가정 등 총 268곳을 방문해 계량기 밸브, 수도물 출수 상태, 옥내 누수 등을 점검하고 독거노인 가정 등의 생활 불편사항을 상담했다.

남부소방서는 독거노인 가정 5곳을 방문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혈압측정과 건강상담을 했다.

북지간강국국은 그동안 성묘객들이 불편을 겪어온 망월묘역 내부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를 거쳐 버스배이행 차량교행 구간 20곳을 추가 설치했다.

교통건설국은 영락공원 주차장에서 효령동 삼거리까지 운행하던 셔틀버스를 확대, 1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용전사거리에서 영락공원 주차장까지 무료 셔틀버스 3대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



추석 다가오니 신명나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6일 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맞아 흥겨운 우리 가락을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제공>

## 광주시,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12개 작품 선정

문화전당 배경 재난 웹툰 등

광주광역시시는 ‘2016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 공모에 접수한 27개 작품 중 최종 12개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작품 중 애니메이션 작품은 슈퍼캐츠, 파워앰블럼, 빨간곰쿠양, 바라바라바프, 벼주얼로봇바이트, 하마하마, 펑고 등 광주지역 제작업체가 만든 7개 작품이다.

광주지역 소재 기반의 웹툰 지원사업을 지정공모해 선정된 웹툰 작품은 ▲광주지역 먹거리를 소재로 한 ‘밥 한 끼 해요’ ▲양림동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소

재로 한 ‘양림동 좀비’ ▲대지진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캐니언’ 등 5개 작품이다. 최종 선정작은 각각 애니메이션 7000만 원 내외, 웹툰 3000만원 내외의 제작지원금과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의 시설·장비를 지원받아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창업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분야 등 지역 문화콘텐츠 기획창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문화콘텐츠 전문 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대표 콘텐츠로는 EBS에서 지난 8월29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다음 웹툰에 연재된 ‘더 헌터’, 원스토어에 연재된 ‘마운틴스쿨’ 등 웹툰 콘텐츠와 게임, 만화 콘텐츠 등 84개다.

서병천 시 문화산업과장은 “올해도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의 EBS 방영, 몬스터스튜디오의 융복합콘텐츠공모전 대상 수상 등 문화콘텐츠 부문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부문의 능력있는 창작인을 발굴해 창업에서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상품화로 발전시키겠다”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 구레, 호텔급 모텔, 직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등 적합
- 시세 / 감평가 - 15억
- 용 7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9억 3천만원 (조정가)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무안, 무인텔 부지

- 무안군(읍) 성동리 621-1번지
- 대지 530평, 백악관 모텔 옆
- 무인텔 허가 득 조건
- 시세 12억
- 매매 11억 2천만원

### 신안군, 증도 임야

- 증도면 증동리 산 113번지
- 1764평 (3529평 중 1/2)
- 도로접, 위치좋은
- 시세 1억 2천만원
- 매매 - 6200만원
- 투자가치 최고 /

###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 12-4번지
- 89평, 2차선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북초 인근
- 시세 1천만원
- 매매 - 330만원
- 급매 (9월 30일까지)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매매합니다! 회사직거래 / H.010-3605-5000

### 장성, 전원주택지

- 동화면 남산리 1073-7번지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코너
- 36세대 중 20세대 거주 중
- 시세 1억, 주변환경 깨끗
- 매매 - 7200만원

### 나주, 근린주택

- 공산면 금곡리 877-2번지
- 1층, 대지 42평, 건물 43평
- 농협건너편, 2차 대로에 접함
- 시세 8천만원, 위치좋은
- 매매 - 5200만원

### 장성, 서삼면 농지

- 서삼면 장산리 691-1번지
- 333평, 코너, 교통최고 요지
- 생산관리지역, 축령산 5분
- 시세 1억 3천만원, 모돈업종 개발가능
- 매매 - 9900만원
- 전원주택, 펜션 최고 장소